

# 구례교육청,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대학생 멘토링

### 대학생 멘토링 활동, 멘토·멘티 총 20명의 학생 참여 특기·적성 교육, 맞춤형 개별 상담 등 특화된 체험활동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훈)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구례군가족센터 및 구례군 일원에서 관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과 학교 적응력 신장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대학생 멘토링 활동을 멘토·멘티 총 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멘토링 활동은 순천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구례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1:1 멘토-멘티가 되어 특기·적성 교육, 맞춤형 개별 상담 등 특화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하였는데, 예비 교사인 대학

생 멘토에게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하였으며, 멘티인 다문화 가족 학생들은 정서 지원 및 문제 해결력 증진을 통한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첫째날에는 구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강식을 갖고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멘티 매칭을 위한 레크레이션, 자기효능감 검사, 멘토-멘티 협업 서트만들기 활동 ▲둘째날에는 천은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여 연꽃등 만들기 및 소원지 적기, 우리만의 모의여행 플래닝 활동 ▲셋째

날에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피자 만들기 체험과 순천대 사범대 컴퓨터교육과가 준비한 언플러그드 코딩 수업, 소감 나누기 등으로 진행하였다.

멘토링 활동에 멘티로 참여한 ○○초 학생은 "멘토 선생님이랑 함께한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공부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멘토 형들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생이 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멘토 대학생 김○○ 학생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멘티 학생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멘토링 활동 이후에도 멘티 학생이 든든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김옥란 교육지원과장은 "구례지역의 다문화가족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



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 이 학생들이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강진 읍초, 교내 여름방학캠프 진행

강진 읍초(교장 김대성)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5일까지 10일간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여름방학캠프를 진행하였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활동에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서로 협동하고 경쟁하며 활동함으로써 학생들의 적성개발을 돕는데 목표를 두고 기획되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밥, 팔발수, 화채 등의 요리활동을 비롯하여 창의공작 및 협동화 그리기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맛보도록 하며, 존중과 배려의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VR, 닌테도 등의 인공지능 교구 등을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 편

집하고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기주도적 역량을 높이도록 하였다.

독서토론 및 어울림활동 시간을 통해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여 자신감을 키웠으며, 난타배우기, 스포츠 놀이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캠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캠프 마지막 날에는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칭찬하며 소감을 나누었으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뤄낸 미션활동을 소개하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여름방학이 짧아서 아쉬웠지만 방학캠프에 참여해서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내게 된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순천대, 입학처 지역고교생 위한 '찾아오는 전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최근 전남 지역 고교생에게 전공별 심화체험 프로그램을

### 12개의 전공심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고교생 128명 참가

제공하는 '2022학년도 찾아오는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대학육성사업 고등교육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고교생에게 진로·진학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성고, 구례고, 광양여고 등 전남지역 고교생 128명을 초청하여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활동에는 12개 주제/학과가 참여하여 ▲채소(멜론,양배추)도 PCR검사할까?(원예학과)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회계(회계학과)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만화애니메이션학과) ▲화학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탐색(화학교육

과) 등 5시간 이상의 전공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학의 학과 연구실, 실험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학부생들과 함께 전공 심화 교육을 경험한 고교생들은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을 배우고, 직접 실험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등 큰 범주에서 벗어나 학과만의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내가 전공할 학과와 대학 생활에 대해 미리 알아볼 수 있어 좋았다."라는 후기를 남겼다. 순천=김승호기자

## 보성공공도서관, 하반기 학생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실시

### 11월 26일까지, 여름방학과정·주말과정 9개 운영

보성교육지원청 보성공공도서관(관장 김순희)은 8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하반기 학생 대상 여름방학과정과 주말과정 9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름방학 과정으로는 푸드 아트 테라피와 요리 수업이 연계되어 책 속에 나오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책 먹는 요리사A.B, 달무리, 스플렌더 등 다양한 보드게임을 통해 건전한 경쟁과 협동심을 배워보는 '북 플레이! 놀

면서 익히는 보드게임'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말 과정으로는 영어 그림책을 통해 영어를 즐겁고 자연스럽게 접해보는 '영어 그림책 놀이터1.2',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로 장식품, 장난감들을 만들어보는 '사계절 자연 놀이터', 생각만 하던 것을 직접 도화지 위에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나도 이제 화가', 암기와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주산암산교



실', 바둑의 이론과 실전을 통해 집중력, 사고력을 배워보는 'EQ 바둑교실(중·고급반)'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성=김덕순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